

Conversion of Scripts and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文字의 表記와 世界文獻統制

한스 H. 웰리시 著
 朴 令 淑 譯
 (梨大圖書館學科 講師)

譯者註: 本論文은 1976. 5. 31~6. 5 서울에서 開催된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에서 發表된것을 번역한 것이다. 著者인 Hans H. Wellisch氏는 美國 매릴랜드大學圖書館學科 教授로 在職하고 있다.

世界文獻統制(UBC)는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그 起源을 최소한 르네상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었던 하나의 꿈이었으나, 이제는 이미 實現段階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세계적으로 결정된 標準方法을 사용함으로써 인류의 意思流通記錄의 보다 완전한 檢索을 향해서 전진함에 따라 비록 추구하는 궁극목적에 미치지 못하고 겨우 조금씩 닥아가기는 하나, 實行 가능한 것과 理想的인 것 사이의 갭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로마자 以外的 文字를 사용한 書誌記錄을 翻字表記 또는 로마字表記(이 두가지 表記法이 실제로 함께 어울려 사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완전한 UBC達成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중국, 한국 및 일본의 司書와 書誌作成者는 서양지역동료들에 의하여 인류의 서사시, 시, 창작작품, 과학사조 등을 기록한 그들의 고유문자가 世界UBC網에 통합될 수 있도록 그 독특한 표현형태를 벗겨버리고 로마자형태로 “變形”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는 인습에 젖은 賢者가 일컫는 듯이, 로마字表記만이 기계와 일반 서양사서로 하여금 書誌記錄을 다룰 수 있게 하여 주며, 이는 마치 서양사서만이 書誌統制를 정당한 방법으로 콘트롤하기로 되어 있다고 암시하는 듯하다.

본인은 로마자표기 찬성론자들이 악의나 우월감 없이 성실하게 처신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UBC때문에 서지기록을 도매금으로 로마자표기하려는 냉혹한 흐름은 표기목적대상인 문헌의 利用者와 讀者에게 해를 올 뿐만 아니라, UBC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도 불필요하며 또 결국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본인은 일반적인 表記의 문제점과 특히 로마字表記의 문제점을 고찰한 결과, 로마자표기는 統制道具로서 使用不可能한 방법이며, 또한 UBC를 진심으로 달성하

고자 한다면 代替方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로마자표기나 그밖의 문자표기법 그 자체가 실행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와 반대로, 광대한 거리를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 몇 시간으로 단축시킨 현대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 보다도 자주 대면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국민과 문화의 成文記錄 역시 文獻의 翻譯과 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記事發信을 통해서 상호접촉하게 되었다. 이제 이것은 어느때보다도 多方向的 現象이라 하겠다. 주로 로마자를 사용하는 서양에서는 러시아, 아랍, 히브루, 인도, 중국, 한국 및 일본의 人名을 위 언어와 문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읽고 발음할 수 있는 형태로 끊임없이 옮겨야 하는 한편 러시아의 저작자와 신문편집인은 이러한 人名과 單語를 시릴 문자 사용자를 위해서 바꾸어주어야 하며, 또 중국이나 한국, 일본의 저자나 편집인 역시 外國人名이나 事件이 독자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文字表記는 또한 歷史 및 地理分野의 도서와 기사의 저자에게도 필요한 작업이며, 특히 地圖制作에 있어서 外國地名은 지도이용자가 잘 알고 있는 문자 내지 최소한 지명의 발음에 가까운 형태로 번자되어야 한다. 原文의 綴字法 및 發音과 目標文의 그것들 사이에는 1대1의 逐次的 翻字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문자표기에는 결과적으로 劃一性이 相互一貫性이 없으며, 특히 서양인명은 한자나 일본어와 같이 발음의 흉내만 겨우 내는 書法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난다. 그러나, 대체로 문자표기에는 결과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표기가 모호한 경우에는 문맥이나 기타 보조방법(지도제작에 있어서 緯經度座標과 같은)에 의하여 외국어명과 단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자표기 특히 로마자표기는 書誌統制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인은 이것이 非効果的이며 어쩌면 有害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자 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자표기의 發達過程을 文獻統制의 입장에서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사용은 일찌기 로마제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회람인명이 라틴어로 처음으로 옮겨졌고, 중세초기에는 聖經의 히브루인명이 벌게이트성경에서 로마자로 표기되었다. 이렇게 로마자표기된 古代古典의 著者名과 聖經人物名이 서지사용에 소개된 것은 16세기에 “書誌學의 아버지”이며 그의 저서 *Bibliotheca universalis*에서 UBC의 꿈을 최초로 제시한 Conrad Gessner에 의해서였다. 이것은, 러시아문학이 18세기 말과 19세기초에 서양도서관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대체로 圖書館書誌目錄에 사용된 유일한 인명 및 서명의 표기이었다. 회람 및 히브루문자에 적합하였던 방법은 시릴문자에도 사용될 수 있었으며, 모든 학문분야에서 구라파가 장악하는 위치 때문에 다른 文化 및 전혀 다른 書法의 文字(구라파의 여러 언어와 문화 포함)와 충돌하여 생기는 문제들은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었다.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에서의 서양식민정책이 절정에 달했을 때까지도 “文明”이라 함은 주로 서양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뜻하였다. 그리하여 서양에서의 동양문학연구는 주로 言語者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기록에 담긴 정신적, 철학적, 과학적 의의가 목적하는 바 특성보다는 언어와 문자의 外形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른 당연의 결과는 로마자 아닌 문자로 쓰인 모든 책과 기타 기록은 圖書館과 書誌에서 정돈된 방법으로 다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로마자형태로 “變形”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개념이었다. 서양식민정책시대가 옛날이야기가 된 지금, 로마자표기가 다른 문자로 된 문헌을 서지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아마도 亞阿地域에서의 구라파지배와 착취의 마지막 잔재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UBC목적을 진심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지통제가 일방통행이며 또 로마자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릇된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로마자는 확실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자¹⁾이기는 하나, 예를 들어 시릴문자로 쓰인 수많은 문헌에 대한 모든 書誌參照가 완전히 로마자표기 되어야만 UBC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꼭 외란된 생각이라. 그리고 다른 문자,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의 合音文字로 쓰인 문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마자표기가 UBC의 전지에서 볼 때, 정말로 조금도 효과적인 것이 못되며 본질적으로 파괴적인 경우도 흔하다.

司書의 立場에서 본 로마字表記의 難點

이제 書誌統制方法으로서의 로마字表記에 따른 어려움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司書와 書誌作成者에 관한 한, 다시 말해서 書誌統制體制의 오퍼레이터로서 이를 실제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즉,

(1) 表記法의 多樣性

로마자 아닌 모든 다른 문자의 경우, 적어도 셋 내지 어떤 때에는 수십개의 다른 表記方法이 있다. 최근에 실시된 다른 文字文獻을 대규도 소장하고 있는 세계 도서관도사²⁾에 의하면, 完全로마자表記(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릴字化 등등)에서부터 각 문자와 언어에 대한 完全別置目錄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에 있어서 꽤 다양함을 나타내고 있다. 로마자 표기법에 관해서 대부분의 표기법이 翻譯하는데에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렇게 다양한 사용에는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원인이 내포되어 있으며, 앞으로 국제적인 규모로 획일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리라 믿는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생각일 것이다.

(2) 一貫性없는 適用과 部分的 修正

심지어 특정문자에 대한 로마자표기방안 하나가 사용되는 경우에도 흔히 一貫性없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적 혹은 국제적 방안을 부분적으로 “修正”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러한 變化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어떠한 이름과 낱말에 적용되는 것인지를 외부사용자에게 아무런 지시도 해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음 세번체의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3) 여러 形態의 로마字表記人名

상위한 방안이나 국가적 사용법에 따라서 로마자표기된 人名은 여러 서지통제도구에서 매우 다른 形態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은 흔히들 字母文字를 쓰는 인명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예를 들어 러시아인명 Кшкевич는 LC목록에서는 IUshkevich로, British Museum 目錄에서는 Yushkevich, Bibliothèque nationale의 1960년 이전의 목록에서는 Iouchkevitch, 그 이후의 것에서는 Juškevič로 나타나고 있으며, 독일

1) 利用者와 圖書出版의 입장에서 본 主要文字의 分析은 Wellisch, Hans H.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world’s major scripts.” *Libri* 25(1975) : 238—250을 보라.
2) Wellisch, Hans H. “Script conversion practices in the world’s libraries.”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8 (1976) : 55—84.

의 서지목록에서도 주로 위의 마지막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同一著者名을 세계의 주요서지도구에서 조사할 때에는 네 군데의 字母配列順序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 국제적 齣字基準의 사용이 사태를 개선해 주기는 커녕 도리어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2,000여 년 동안 서양세계에 로마자화된 Homeros(혹은 Homerus)로 알려진 희랍의 대시인명은 이제 ISO/R843—1968에 의하면 'Omēros로 표기되어, H字 아닌, 거의 찾아보지도 않을 O字에 배열된다.

그러나, 로마자표기에 있어서 이러한 상위점은 그래도 말쑥이 작은 편이라 하겠다. 일본인명 高野는 Kōno, Kōya 혹은 Takano와 같이 여러 형태로 표기할 수 있으며, 로마자표기형태 Kōno는 「간지」로는 십여개로 되 바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인독자가 로마字表記人名目錄을 들춰볼 경우에는 人名原形을 같이 보지 않으면 누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사태를 공평하게 관찰한 사람은 이를 가리켜 統制의 正反對인 혼돈과 혼란이라고 할 것이다.

(4) 原綴字에로의 複元

原形에로의 複元, 즉 정확한 再齣字는 이론상 순수한 字母文字 상호간에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외국어의 엄밀한 번자보다는 쉬운 發音과 近似音韻을 찾는 요구가 강하기 때문이다. LC가 채택한 표기법에 의한 시릴문자의 번자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合音文字의 경우에는 原綴字의 再生이 전혀 불가능하다. 漢字의 번자는 오직 音素의 으로만 가능하며, 이는 특정중국방언 혹은 경우에 따라서 한국어 및 일본어로 발음될 때 韓文의 發音에 가깝게 하려는 것이다.

(5) 錯誤의 可能性

로마자 아닌 문자의 복잡한 綴字法(모음을 함께 쓰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발음되지 않는 글자를 쓰는 것 등등)과 로마字表記法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아무리 原語에 정통한 로마字表記者라 할지라도 표기하는데에 생기는 착오와 실수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은 흔히 原書誌에서 발견, 정정되지 않고 그냥 인쇄로 넘겨져서 서지목록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利用者로 하여금 인명이나 단어 原形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

(6) 字母順序排列

로마자 著錄記入과 로마字表記된 著錄을 함께 排列하는 때에는 一貫性이 상실되므로 결과적으로 보다는 많은 착오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동일서지체제 안에

서 전혀 다른 로마자표기법으로 번자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LC목록에서 시릴語幹인 中央를 본다면, 러시아서명에 나타난 경우에는 tsentral로, 세르비아서명의 경우에는 central로 로마자표기를 함으로써, 동일한 철자가, T와 C에 배열된다. 물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로마자표기가 單回檢索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이는 UBC 전체 이념을 거역하는 것이다.

利用者の 立場에서 본 로마字表記의 難點

서지통제체제의 利用者(여기에서는 司書를 제외한 이용자를 뜻한다)가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하자. 앞서 밝힌 문제점 이외에도, 서지목록 이용자는 로마자표기법을 거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열쇠를 전혀가지고 있지도 않다. 이용자는 原形人名을 알아내기 위하여 로마字표기를 解讀하여야 하며, 이는 暗號解讀表가 발신인(사서)에게는 배부되어 있으나 수신인(도서관이용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암호풀이연습이나 암호문 해독과 같은 경우가 허다하다.

人名은 변형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특히 유명한 저자의 경우), 書名의 일괄적인 로마자 표기는 거의 무용지물이다. 대개가 로마자표기된 單語辭典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류의 日本語辭典이 있기는 하나, 이는 주로 일본어독자를 위한 것이지 외국인용을 위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서양에서 사용하는 로마자표기법에 준하는 것도 아니다. 중국서명의 경우 “Kuan yü fa chan kuo min ching criti t i ko wu nien (i chiu wu san nien tao i chiu wu ch'i nien) chi hua chih hsing chieh kuo ti kung pao”⁴⁾

3)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알거나 또 본인이 든 예가平凡하다고 여기는 대표들에게는 미안하다. 그러나 본 논문은 서양사람도 읽을 것이기 때문에 合音文字의 로마자표에 따른 근본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양의 사서와 학자들은 예를 들어 일본인명의 로마자표기가 희랍이나 러시아 인명의 그것처럼 간단하다고 믿고 있으며, 아래에 인용한 동양자료담당국의 미국인 사서의 말과 같이 복잡한 일본어의 擬聲語를 도무지 인식하지 못한다. 즉,

혹자는 동양문자 著錄文의 생략을 반대하며 또 혹자는 심지어 複製는 무익한 것이라고 한다. 본인은 이것이 情報不足에 대한 寬用의 정도문제라고 생각한다. (J. Musgrave, “Automated bibliographic control of area research materials”, in *Conference on Access to Southeast Asian Research Material*. Proceedings, edited by C. Hobbs. Washington, D.C. : [s.n.], 1971, p. 116)

이러한 질문이 나올지하다: 동양인이용자가 중국인이나 일본인 저자명을 무모하게 표시한 전혀 무의미한 로마자 뒤범벅을 보았을 때 그는 얼마만큼이나 참을수가 있을까?
4) LC카드 C60—1496. Lee-Hsia Hsu Ting, “Problems of cataloging Chinese author and title entries in Ame-

와 같은 서명은 서양이용자에게는 전혀 무의미하며, 原文인 關於發展國民經濟的第一五個年 (1953年到 1957年) 計劃執行結果的公報를 함께 실어주지 않는다면 중국이용자에게도 역시 쓸모가 없는 것이 된다. 대부분의 로마자표기서지에는 중국어의 四聲 표시가 없기 때문에 中國原典의 로마자표기는 더욱더 모호하며 해독 불가능하다.⁵⁾⁶⁾ 지금까지 이야기한 중국어의 예는 한국어에도 마찬가지이며, 일본어의 경우에는 보다 더 어렵다.⁷⁾

끝으로, 로마자표기의 서지통제체제는 原形人名確認의 가장 기본적인 보조방법 즉, 로마자화된 저자명 혹은 서명의 相互參照, 예를 든다면 Кркевич는 Juškevič를 보라, 또는 趙는 Chao를 보라, 를 이용자로 부터 박탈하는 것이다.

統制道具로서의 文字表記의 人間頭腦學의 分析

로마자표기의 열렬한 옹호자들까지도 表記가 다른 문자의 解讀者에게는 도움보다도 방해가 된다고 항상 인정하여 왔다. 한편, 로마자표기는 目錄作成者나 參考司書뿐만 아니라 西洋學者를 위하는 것이어야 하며, 적어도 다른 나라말 문헌의 最小限의 書誌統制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그 문자나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司書에 의하여, 또 로마자표기된 目錄카드를 구하여 이를 복사 및 배열하기 위한 사무적인 도움이 될 때에만 최소한의 서지적 통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로마자표기의 難字상의 短點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결국 주관적인 평가이며 다른 견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로마자표기법은 統制방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 有効性은 기계, 동물, 개념 등의 모든 制御過程에 관한 綜合科學인 사이버네틱스의 객관적 법칙을 적용하여 고찰할 수 있다.

상위한 문자의 文獻書誌統制問題는 어떠한 종류의 書記素的 變形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 이말에 대한 증명을 자세히 펼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며,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⁸⁾ 본질적으로 말해서, 서지통제체제내에서 우세한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로 쓰인 문헌이 서지통제체제의 入力시에 보여준 多樣性 여하가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순수한 書記素的 統制方法을 파괴하며, 따라서 出力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알 수 없게 만들며, 이는 체제전체의 기본목적을 배신하는 것이다.

代替解決案

만일 로마자표기법이 로마자 아닌 문자로 쓰인 문헌 특히 合音文字文獻의 효과적인 書誌統制道具가 되지

못한다면, 서지체제(도서관목록, 서지, 색인 등)의 오퍼레이터와 문헌을 찾아 이용하고자 하는 서지도구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문헌통제방법이 될 보다 믿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가능한 代替方案에 관하여 간략하게 윤곽을 제시할까 한다. 이들 모두 아니면 일부는 사용된 언어와 문자와 관계 없이 미래에 문헌의 세계서지통제체제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방안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것들도 언어전문가, 사서 및 서지전문가 그리고 컴퓨터에 의한 書記素테이처리전문가가 공동으로 개발시켜야 될 것이다.

文字와 言語에 의한 別置目錄

서양사서들이 오랫동안 쫓아온 完全“統合”된 로마자표기목록은 이제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非로마자 文獻의 이용자에게 도움보다는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서지통제개선을 위한 첫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文字別로 서지목록을 分離하는 것이다. 言語別로 분리하여야 하는 경우도 많다. 아랍, 페르시아, 우르두 및 터어키語 資料에 대한 아랍 語目錄을 갖는 것은 옳을 것이다. 또 중국어자료와 일본어, 한국어자료를 별치하는 것도 가장 옳을 것이며, 히브루말과 이디시말 자료를 분리배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상은 몇개의 예에 불과하다. 여기에서도, 서로 다른 綴字法을 사용하는 언어들이 로마자(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시릴자)의 字母順排列에 의해서 보통 같이 배열되고 있는 사실은 서로 다르고 언어학

rican libraries,” *Library Quarterly* 36 (1966) : 1-13에서 인용한 예.

- 5) K. Kishibe, “Cataloguing books in Chinese” *International Cataloguing* 3 (1974) : 4에 의하면 “독자들은 주로 漢字를 보지 않고는 難字標目的 뜻을 알아낼 수 없다고 불평한다.”
- 6) J.D. Anderson, The arrangement of Chinese-language author-title catalogs”, *Library Quarterly* 44 (1974), p. 54에 의하면 “로마자화된 정보란으로는 韓字를 근거로 하여 排列된 목록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 이는 일반적인 문제점으로서, 많은 출판물이 중국어서지정보를 로마자형태로만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 7) Jack Toru Tsukamoto는 日本人名과 로마字表記의 문제점을 석사학위논문 *A study of problems of Romanization of the Japanese language in library cataloging* (Austin : University of Texas, 1962)와 최근의 “Can uniformity in transliterating Japanese personal names be achieved?” (2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Orientalists, Paris, July 16-22, 1973)에서 다루었다.
- 8) Wellisch, H.H. *The conversion of scripts: its nature, history and utiliza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bibliographic control*. College Park, Md. : Univ. of Maryland, 1975. (Ph. D. Thesis)

상 관련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문자에 대한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

문자별 및, 또는 언어별 目錄別置法은 사실상 대규모 非로마자字藏書를 소장한 몇몇 구라파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소련도서관의 표준이다. 그리고 多言語, 多文字 藏書를 가진 대다수 동양 도서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前記한 調査(註2)에 응한 동양지역의 전체대학도서관의 80%, 공공도서관의 73%, 전체특수도서관의 90%가 문자별 및 언어별 別置藏書를 가지고 있었다. 동양지역 국립도서관만이 著錄의 로마자化에 찬성하는 경향인데, 이는 아마도 서양지역 대규모 국립도서관의 영향을 받고 서양지역동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며 UBC에 협력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아주 誤導 내지 誤解된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며 UBC의 진실한 목적 달성을 촉진시키지 않는다. 결국은 동양지역 국립도서관이 非로마자文獻(특히 自國語資料)의 권위있는 著錄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요한 전문가를 구하기 어려운 반면 훌륭한 기술설비에 의해 原著錄을 여러 방법(사진식, 사진조판법 혹은 전자식)으로 複製할 수 있는 서양도서관의 완전한 모범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문으로 된 이러한 著錄에는 인명 및 서명의 로마자 표기와 非로마자檢索標目的 形態 및 排列順序의 參照를 함께 써주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非로마자 主著錄에로의 상호참조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主著錄의 부분적 혹은 전체적 로마자표기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원문 및 원어로 된 主著錄은 한번만 목록하여 주면 되고 그 언어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고유의 배열위치에서 찾을 수 있으며, 따라서 著錄이 지지하는 문헌을 사용할 수 있다.

로마자 상호참조는 그 언어를 모르는 이용자에게 이러한 자료가 아라비아, 힌두, 중국어 등등으로 있음을 밝혀주며, 인명의 로마자표기법이 여러가지일 때에는(혹은 같은 저자가 시때나 작품에 따라 달리 표기될 경우), 이용의 관점에서 필요한 수 만큼 참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서양도서관 서지목록의 일괄적인 로마자와는 아직도 그 지지자들이 여러 문자 인쇄에 따르는 기술적 난점, 인쇄숙련공의 부족, 비로마자문자가 원형으로 재생되어야 할 경우의 높은 생산가의 이유를 들어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알파벳을 지니고 있는 “끌프공”만한 키를 필요에 따라 바꿔 칠 수 있는 타자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中央目錄, 컴퓨터에 의한 寫眞植字術, 저렴한 寫眞石板印刷 및 複寫工程이 발달한 현대에, 書誌著錄이 경제적으로 혹은 로마자저록 보다

싸게 생산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결국 言語專門家が 저록의 로마자표기(이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따라서 비싼 과정이다)를 담당하여야 한다. 만일 寫眞複寫 著錄의 생산에 동일한 전문가를 쓴다면 시간이 덜 들 것이며 같은 자료의 어떠한 로마자표기 보다도 착오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LC와 기타 중앙서지 봉사기관이 작성한 로마자저록에 대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저록을 국립서지기관이나 국립도서관과 같은 중앙부서에서 配付를 하여 複製하거나 서지도구 안에 統合하도록 한다.

合音文字의 問題點

위에서 지적한 방법은 중국어, 한국어 및 일본어와 같은 合音文字에 보다는 字母文字에 더 적절한 것이다. 合音文字의 경우에는, 書記素의 모양을 간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차례대로 排列(字母順排列에 상당하다) 하는데에, 그리고 機械 특히 컴퓨터에 의한 그래픽出力記號와 文字에 평강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한자의 인쇄에는 일반 라인프린터가 부적당한 것은 뚜렷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국, 일본 혹은 한국어자료의 저록이 반드시 로마자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자의 경우에는 컴퓨터가 작성한 서지목록의 통계기능을 다치지 않고도 실제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人力 및 出力의 요구조건이 무엇인가 가능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통계기능에 절대로 필요한 점은 컴퓨터가 한자를 그대로 인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자를 서로 다르면서 명확한 書記素에 의하여 표시하는 방법이 최초의 현대 컴퓨터가 이에 대하여 생각하기 훨씬 이전에 수년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것은 표준 韓英辭典(Giles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Matthews에 의한 더 나은 것)에 있는 각자에 4자리 숫자의 일련번호를 매겨서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그대로 “숫자에 의해 한자를 쓰는 것이다.”⁹⁾ 이 방법은 手動的使用 때에는 귀찮은 것이지만, 컴퓨터가 한자를 처리할 때에는 이상적일 것이다. 原文의 入力은 숫자형태로만 될 수 있으며 出力은 사용되는 기계의 소프트웨어에

9) 이 방법은 韓字電報傳達에 수십년 동안 쓰였으며 또 그 목적에 잘 맞는 것 같다. George Sarton은 그의 저서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science*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27-48)에서 Wade-Giles 中國人名辭字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한자에의 번호사용은, 예를 들어 人 3097은 그 글자의 여러 뜻 중에서 어떤 것이라고 나타내주지 않으므로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모호함은 중국어와 그 서법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는 어떠한 종류의 순수한 書記素의 變形으로도 해결될 수 없고 오직 문맥에 대한 인식에 의해 서만 해결될 수 있다.

에 따라서 같은 숫자형태나 혹은 실제 합음문자의 형태로 띄게 한다. 순수한 숫자출력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덱스¹⁰⁾에 있는 한자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이 조금 성가시기는 하나 중국어 해독자에게는 예를 들어 Shih와 같은 여러 다른 의미를 가지는 로마자표기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알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덜 걸린다. 컴퓨터에 의한 韓字印刷에 관하여 東京소재 國立議會圖書館(NDL)은 이것이 가능함(적어도 흔히 사용되는 글자의 경우)을 성공적으로 제시하였고, 미국에서는 1975년에 개발된 IBM 3800 Printing Subsystem은 레이저광선에 의해서 「가타가나」를 고속도로 인쇄해 낼 수 있다.

韓字排列에 뒤따르는 어려운 문제점도 이러한 방법에 의한다면 어느정도까지는 해결될 수 있다. 이는 數值에 의하여 배열된 數는 자동적으로 根據辭典의 그것과 동일한 글자의 배열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윤곽을 밝힌 數의 方案은 항상 완전한 결과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를 참작한 일본어사전과 「한글」을 고려한 한국어 사전에 각기 根據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이러한 문자로 쓰인 문헌의 서지통제를 위하여 번잡한 것이 전혀 알 수 없고 대부분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린 것보다는 틀림없이 더 나은 통제도구이라고 생각한다. 서양의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 전문가들은 아마도 심지어 각기 제 나라에서 사용하는 데에도 큰 차이가 있어서 수많은 착오, 실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중국 일본 및 한국 人名과 單語를 表記하려고 헛수고를 하지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신 이제는 이러한 방안의 完成에 정력을 쏟을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일본인명의 여러가지 “讀法”을 들은 것은 심지어 일본의 원주민에게도 書記者가 명백하지 못하며 서양인이용자에게는 더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¹¹⁾

中央集書

문자와 언어별 문헌 별치목록은 물론 서지목록과 색인의 書記著錄을 작성할 그 언어에 숙달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가는 구하기가 어렵다. 오늘날 통제도구로서의 로마자표기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용된다. 즉, 여태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司書나 書誌記述者로 하여금 自國語와 그 綴字法 외에 또 다른 하나의 外國語를 몰라도 모든 언어와 문자를 통달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자표기가 유일의 실행가능한 서지통제도구라고 치켜 세우는 바로 이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나라 사서가 원문을 읽지 못하므로 작은 色點으로 영국, 불란서 혹은 독일 문학을 확인한다면 질책을 할 것이다. 그러나 전혀 달

리 人工的이고 模型的으로 변형시킨 서법에 의하여 시릴 아랍 혹은 중국자료를 다루는 사서는 러시아, 아랍 혹은 중국 도서의 原文 著者名과 書名을 알고 있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똑같이 “文盲”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별치목록이나 기타 서목이라 함은 非로마자文獻의 集書가 대규모 研究圖書館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문자와 언어를 해독하는 사람을 부리며, 진실한 서지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다. 만일 목록카드형태의 서지통제도구, 서지기입, 혹은 머신리더를 데이터과일을 이러한 중앙장소에서 만들어 낸다면, 물론 다른 도서관이 이러한 原文著錄을 취급할 해석도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필요한 修正을 사무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생산품을 사용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미래의 이용자를 위하여 취급도 해석도 할 줄 모르는 언어로 된 자료를 소장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언어와 문자를 “아는 척”하는 文盲한 사서는 專門司書職에 붙은 장식품이 아니다.”

그러면, 非로마자文獻을 필요로 하나 이러한 중앙장소가 될 경우에 이용자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러시아 혹은 일본어 자료를 소장한 큰 도서관으로 직접 그의 요구를 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寫眞複寫와 마이크로 複製가 저렴한 요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가 그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자료를 묵히기 보다는 착오나 헛수고 검색없이 훨씬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원하는 자료를 손에 넣을 것이다.

著者名의 單回確認

주로 著者名에 의한 資料의 書誌確認은 원래 서양에서 사용되었으나 근자에 와서 동양에서 채택되었다. 서지통제목적의 單一著者名에 의한 檢索法은 반드시 이름 다음에 姓을 쓰는 서양인명의 경우에도 적용하기에 용이한 것이 못되며 또 수많은 난점을 야기시킨다. 이 규칙은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 인명에 적용될 때 파괴되고 만다. 인명중 어떤 것이 “主”된 부분인지를 가리기 어려우며, 자기나라에서도 분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부자연스럽게 번잡한 저자명에게 멋대로 로마자표기한 것을 덧붙였을 때에는 그러한 이름을 만

10) 이러한 索引이 이미 출판되었다: Dougherty, Ching-yil et. al. *Chinese character indexes*.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53. 5卷으로된 이 책은 數字電報符號, 로마字表記方案 5가지, 語根, 劃數 및 Four Corner System에 의해서 한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11) 한자의 數字符號 公式使用은 이미 1961년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11차 年次報告書에서 권장하였다. 즉, “본 제단은 翻字法의 다양성을 피하기 위하여 한자의 中國電報符號使用을 권장한다.”(p. 127-128)

들어낸 서지목록작성자 이외에는 아무도 검색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著者 자신이 자기 저서의 標題紙에 쓴 그 이름을 그대로 目錄하며 여기에 도서관이 사용하는 翻字法과 다르기는 하나 적어도 저자가 서양이용자에게 알려지기 원하는 이름 형태로 로마자표기를 하여 포함시키는 것이다. 흔히 로마자표기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즉 동일저자가 자기 이름을 Mahmud, Makhmud, Mahmood, Makhmood, Machmud, Mahmoud, Makhmoud로, 혹은 Cheng, Zeng, Zheng, Ženg 등으로 로마자화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한국 그리고 특히 일본인명의 경우, 로마자표기에 의한 명백한 單面確認은 실제로 불가능하며 로마자표기가 정확한 서지통제에 그 목적을 둔다는 개념은 환상에 불과하다.¹²⁾

만일 저자명의 단회확인(單回確認)이 진실로 특정목적(特定目的)을 위하여 중요하다면, 저자명(著者名)에다가 언어와 문자에 구애받지 않는 數字 혹은 文字와 數字를 사용한 符號를 매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른다.¹³⁾ 이미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와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番號法은 UBC의 일익을 맡고 있다. 왜 ISAN(International Standard Author Number)이라는 著者名確認을 위한 國際方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일까. 이 아이디어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며 오래전에 실용적이 못된다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國家 및 國際의 컴퓨터網時代 이전이었고 많은 나라(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가 아직 國立圖書館이나 國家書誌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이제는 이러한 情報奉仕機構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IFLA에 의한 이러한 方案의 可能性模索은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

文獻의 單回確認

UBC에 있어서 저자명(著者名)확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서, 보고서, 기사 및 모든 비도서자료 등 각 文獻의 單回確認이다. 로마자표기(羅馬字表記)서명은 이미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전혀 무의미한 것이며, 단지 로마자표기 한 저자명 아래에서 다시 배열하기 위한 순전히 기계적 수단에 불과하다. 原語를 아는 이용자에게는 翻字書名이 불필요한 것이므로 書名翻譯이 원어를 모르지만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非小說(非小說)부분에서, 서명은 적어도 그 자료가 다루는 題目에 대한 훌륭한 端緒가 된다. 그러나 翻譯도 매우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單回確認手段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서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방법보다는 番號法에 의하여 더 쉽고 훌륭하게 統制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에서는 이미

ISBN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서구의 도서출판에서 급속한 이용증가를 보이고 있다. 동양지역의 出版者와 國家書誌에서는 이 방안을 가능한 한 대규모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非로마자圖書의 경우 各 출판물에 대한 單回確認番號가 더욱더 절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ISBN의 擴大 즉 USBN(Universal Standard Book Number)가 F.H. Ayres 및 기타¹⁴⁾¹⁵⁾에 의하여 제안되었으며, 이는 UBC의 전도가 밝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1969년(ISBN이 처음 적용된 해인) 이전에 출판된 문헌에 대하여서는 소위 "Mansell" 番號에 의하여 대부분이 취급되고 있는데, 비로마자도서를 상당량 포함한 *NUC: pre-1956 Imprints*에 있는 著錄 하나하나에 대하여 9자리의 물자와 숫자로 된 부호를 주고 있다. 세계의 주요 定期刊行物을 대부분 다루고 있는 ISSN시스템에서는, 부담스럽고 모호한 로마자表記書名 대신 標準樣式에 의한 卷, 出版年, 面표시를 함께 줌으로써 회의록이나 연감같은 集書의 기사나 기고문에 대한 명백한 單一檢索符號가 될 수 있다.

저자명(著者名)이나 문헌확인(文獻確認)을 위한 文字와 數字符號의 사용은 사무절차에 의해 手動으로 뿐만 아니라 機械化된 데이터 베이스의 入力으로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는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반드시 비로마자문자로 인쇄된 프린트아웃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그러한 언어와 문자를 해독하는 문헌이용자를 위하여 이와같은 出力이 체내내의 中央場所에서 出版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書誌資料를 이처럼 간단하게 사무적으로 취급한다면 別置排列된 非로마자文獻의 취급은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실제로 훨씬 덜 복잡하게 될 것이다.

結 論

이상은 어색하고 어떤 때에는 솔직히 비생산적인 로마자表記法에 따르지 않고 효과적인 서지통제를 이루기 위한 가능한 방법의 몇가지 예에 불과하다. 다른 방법은 현대 통신공학의 발달에 따라 가능하게 될 것이다. 주로 컴퓨터와 CRT端末裝置를 사용하는 이 공

12) 저자가 표제지에 로마자표기된 자신의 이름 두가지 Tam Wing Kwong (Tsam Weing Guong)을 써준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LC는 그 저자명을 T'an, Tuang-Kuang이라고 로마자표기하고 있다.

13) LC는 수천개의 저자명을 문자와 숫자로 된 부호에 의하여 착오없이 확인하기 위하여 "Cutter번호"를 준다.

14) Ayers, F.H. "The Universal Standard Book Number (USBN): a new method for the construction of control numbers for bibliographic records." *Program* 8. (1974): 166-173.

15) Beale, D.D., and M.F. Lynch. "An evaluation of, and improvement on, Ayres Universal Standard Book Number." *Program* 9(1975): 35-45.

학은 다른 문자의 로마자표기 뿐만 아니라 原文의 혼적이 전혀 없어야 효과적인 통제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공학을 물리적으로 사용하여 羊皮紙와 깃털 시대에 발명된 의사소통 기록방법을 영구화 시킨 결과이다. 筆寫時에 그 이용이 제한되었었으며 이제와서 거의 소용에 닿지 않거나 심지어 나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밝혀진 방법이 번개같은 속도나 전자적으로 행하여 진다하여 더 훌륭하거나 보다 유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하고 “이국적인” 아시아 아프리카 문자로 쓰인 문헌을 통제하기 위하여 무모하게 의식적으로 행하는 完全로 字母表記傾向에서 나타난 가장 불안한 점은 이용자가 당연히 자기나라 말과 글자로 조직된 문헌을 찾을 圖書館과 書誌道具로 하여금 근래에 와서 이같은 實際를 강요하였다는 점일 것이다. 이것은 그나라 고유의 문화기록에 “能率”을 올리기 위하여 그리고 “現代方法을 소개”한다는 명목아래 자기네 시스템을 점잖게 이식한 外國司書가 그 고유문화에 대하여 보낸 오만한 경멸을 표현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아시아 아프리카지역의 일부 사서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는 利用對象인 그들 나라 사람에게 미칠 결과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러한 시스템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그들 도서관에서는 로마자를 統制道具로 사용하면서 국민문학을 창조한 固有文字를 마치 그 문학이 담긴 圖書 및 기타 文獻의 組織에는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고유문

화의 전통적 가치를 비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동료 시민에게 투영된 자신과 도서관의 이미지를 비하시킬 따름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도서관봉사를 하였고, 따라서 대부분의 서양지역 사서보다도 문제점에 대한 훌륭한 洞察力을 지닌 캐나다의 J.M. Elrod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였다 :

현재의 英美目錄規則은 藏書에의 接近이 著者와 書名記入에서는 로마자로 그리고 主題名標目에서는 영어로 된다고 가정한다. 이 假定은 로마자나 영어를 모르는 利用者에게 봉사하는 장서인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완전하고 훌륭한 고유의 字母, 字體, 綴音을 가진 나라의 司書는 그 나라말로 된 저자나 서명을 로마자로 變換하거나 英語로 된 주제명표목을 사용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¹⁶⁾

로마자표기는 이렇게 여러언어의 문헌에 대한 완전한 UBC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본인은 文獻의 單回確認이 原形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國際書誌統制網에 성공적으로 統合시킬 수 있다고 믿는 동시에, 이는 오랫동안 인류기록의 상당한 중요부분의 利用을 원활히 하였기 보다는 방해해왔던 로마자表記의 장애를 제거하리라 확신한다.

16) Elrod, J.M. The two-language collection with the bilingual reader." *International Cataloguing* 1 (1972), p. 7.

■ 會員倍加運動을 展開하고 있습니다

圖書館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內唯一의 圖書館聯合體인 本協會는 全國에 있는 보다 많은 圖書館 및 圖書館人들이 本會 趣旨에 贊同하여 參與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會員 여러 분께서는, 아직 加入치 않고 있는 圖書館이나 司書에게 會員加入을 勸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會員의 種類

個人會員 : 圖書館職員 및 圖書館學을 履修한 사람

團體會員 : 圖書館, 學校 기타 圖書館 施設을 가진 團體

2. 入會節次

所定樣式에 의한 入會申請書를 記載 捺印하고 會費를 納付하면 會員證을 交付받게 됨.